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7번

Jeff Pippenger

2026-01-29

## 제삼십칠번

윌리엄 밀러의 꿈에서, 사람들이 보석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던 처음의 그 "소동"에 앞서, 밀러가 보석들을 모아 "와서 보라"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지 술을 든 사람으로서, 빗자루로 잡동사니를 쓸어내고, 보석들을 훨씬 더 큰 상자에 모으신 다음, 밀러를 불러 "와서 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빗자루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방은 비어 있었으니, 이는 밀러가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방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떠났고, 그가 손에 먼지 술을 들고 창문을 열어 방 안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 방을 떠난 뒤에, 먼지떨이를 든 자가 방에 들어온다. 2023년에, 십사만 사천의 운동이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으므로, 그 빈 방에 먼지떨이를 든 자가 들어왔다. 2012년의 하박국의 표판들로 대표되던 진리들은 쓰레기 더미에 묻혔고, 방은 비어 있었다. 그 먼지떨이를 든 자는 세레 요한 뒤에 오신 그분이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시며 그 키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한 바로 그분이시다.

나는 참으로 회개를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조차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시리라. 그의 손에 키가 있어,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알곡은 곡간에 모으시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불사르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나아오사,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3:11-13.

갈릴리는 전환점의 상징이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요단강의 지점은 벤아바라라 불리는데, 이는 '나루터'를 뜻하며,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장소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갈릴리, 요단강, 벤아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모두 경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는 또한 문이 상징하는 바이고, 특히 열고 닫는 문의 열쇠를 받은 빌라델비아인들에게 그러하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3:7, 8.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고" "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 방은 "그의 방"이었다. 이는 그가 "그의 바닥"을 철저히 소제하시기 때문이다. 그 바닥이 그의 것이라면, 그 방은 그의

방이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오가시던 여정들 사이사이에 머무르셨고, 그래서 그곳은 '자기 동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기슭에 있었고, 실제로 그 평야 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아름다운 게네사렛 평야의 경계 가까이에 있었다. 시대의 갈망, 252.

그분은 자신의 믿을 거두고 가라지를 모아 불사르기 위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가신다. 갈릴리와 요단, 벳아바라와 세레, 곧 요한에게서 예수께로의 전환으로 표상된 경륜의 변화는 라오디게아의 전투하는 교회에서 빌라델비아의 승리하는 교회로의 전환과 상응한다. 그분은 2023년 7월에 자신의 방에 들어가셨다. 밀리는 2020년 7월 18일의 분주함 속에서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 그 방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진리는 오류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런 다음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이 창문들을 열고 쓰레기를 밖으로 쓸어내기 시작하였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리라.’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케 하는 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가 알곡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영에 차 있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겸손의 생애를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께 등을 돌렸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혼들이 시험을 받고 있다. 진리가 마음에 절실히 적용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일을 떠맡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분노한다.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리며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마음에 상하여 떠나간다.”  
『시대의 소망』, 392.

2024년의 첫날과 맞닿아 있는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자기 계시의 봉인을 점차적으로 떼기 시작하셨다. 다니엘서 12장의 봉인 해제에 따른 삼단계 시험 과정에 따라, 그 후 '정결케 됨, 희게 됨, 연단됨'으로 나타나는 세 차례의 시험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되었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고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 중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첫째 천사는, 죄를 깨달은 죄인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소의 뜰에서 제물 위에 자기 죄를 전가하는 것과 같이, 정결케 함을 상징한다.

그 피는 이어 성소로 들여지며, 그곳에서는 거룩함의 성화 과정이 뜰에서 가져온 피로 씻김을 받아 희게 되는 것으로 표상된다. 그곳에서 의는 피와 그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안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그런 뒤 시험을 받으며, 후일에는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열 배나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다. 세 번째 시험은 그들이 지성소에서 영화롭게 되고, 자칭 지혜자라 하는 또 다른 계급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 세 번째 시험은 일요일 법령이며, 첫 번째 시험은 기초로 돌아오라는 첫째 천사의 부르심이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둘째 천사의 분리의 기별이며, 그 뒤를 셋째 천사의 시금석 시험이 뒤따른다.

2023년에 첫째 천사가 도래하였는데, 이는 1840년 8월 11일, 곧 그가 둘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기별을 가지고 강림하였던 때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9/11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셋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기별과 옛 길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강림하였다. 1840년 8월 11일에 둘째 화의 기별이 성취되었을 때, 밀러주의 역사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때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하였고, 이로써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과 셋째 화의 도래가 예표되었다.

조시아 리치는 1840년 8월 11일에 초석이 놓이던 일과 연관된 역사적 인물이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초'를 뜻하며, 성경 역사에서 왕 요시야는 요시야의 개혁을 표상하는데, 그 개혁에는 성소의 잡동사니 더미 속에 묻혀 있던 모세의 저주가 발견된 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마치 밀러의 보석들이 방 안에 파묻혀 있었던 것과 같았다.

요시야 왕은 므깃도에서 죽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이다. 요시야의 개혁은, 여로보암이 벤엘과 단에 두 제단을 세웠을 때 불순종한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였다. 그 불순종한 선지자는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었다. 요시야 왕은 이름까지 미리 예언되었고, 그의 개혁은 그 예언의 일부였으며, 장차 일어날 요시야 왕이 그 불순종한 선지자가 악한 왕 여로보암을 대면했던 바로 그 제단을 헐어 버릴 것이라는 내용이 그 예언에 포함되어 있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초를 뜻하며, 요시야 왕은 그의 통치에 앞서 약 34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는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여 마침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대면하였던 그 제단에 이르렀다. 그곳에 이르자, 예언이 말한 대로 요시야는 그 제단을 산산이 부수었다. 여로보암의 그 두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려는 의도적 모조물이었고, 여로보암은 심지어 거짓 절기들까지 제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론이 금송아지로 행한 일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었다. 아론의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의 기초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인 율법을 모세가 수여받고 있던 때에 일어났다.

아론의 반역은 근본적 반역이었고, 여로보암이 북쪽의 열 지파를 이스라엘로 세웠을 때 그 반역이 반복되었다.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였고, 모세는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알파, 곧 기초이다. 아론과 모세는 그 근본적 반역에서 두 부류를 대표하며, 제3의 부류는 모세와 함께 선 자들, 곧 레위인들로서 영웅들이다. 여로보암 왕과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북왕국의 근본적 반역에서 두 부류를 대표하고, 다시금 레위인들이 영웅들이다.

여로보암의 근본적 반역의 시초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기초'라 이름할 왕, 곧 요시야를 예언하였다. 예언된 개혁의 성취에는, 요시야가 부흥과

개혁을 시작할 때 모세의 저주가 발견되었고, 모세의 거룩한 말씀의 낭독이 이미 시작된 그 부흥과 개혁에 권능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시야는 명백히 예언적 상징으로서, 모세의 글에서 나온 한 예언이 발견될 때 권능을 얻는 부흥과 개혁을 대표한다.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에서의 근본적 반역은 이스라엘 왕에 의해 대표되며, 또한 여로보암의 근본적 반역을 규탄하는 신탁과 유다로 돌아갈 때 어느 길을 피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명령을 부여받아 파견된 유다 출신 선지자에 의해서도 대표된다. 유다 출신 선지자는 머물러 달라는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 후 벳엘의 거짓 선지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을 확정짓는다. 그 불순종한 선지자는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게 되고, 이어 거짓 선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1840년 8월 11일, 둘째 화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재림주의의 토대가 놓였다. 조시아 리치는 1838년에 그 예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1840년 8월 11일 열흘 전에 자신의 계산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둘째 화에서 이슬람에 관하여 주어진 예언의 성취로 오스만 제국의 패권이 종식될 날로 1840년 8월 11일을 예언하였다.

요시야 왕은 최후의 부흥과 개혁을 상징한다. 이는 모든 선지자가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말세에 관하여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요시야 왕은 최후의 부흥과 개혁을 상징하며, 그 개혁은 성경에서 예언을 통해 제시되었다. 요엘서는 십사만 사천이 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최후의 부흥과 개혁을 가리킨다. 요시야의 부흥은 두 단계였다. 먼저 시작되었고, 이어 그 사역에 추진력을 더하는 예언이 봉인이 풀려 드러났다. 그 두 단계는 요엘서에서 제시된 이른 비와 늦은 비이며,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고, 이어 밀러주의 역사에서 다시 성취되었다.

아론과 왕 여로보암, 그리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기초 단계의 반역들로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요시야 리치에까지, 기초의 시험에 관한 증언의 한 연속선이 식별된다. 기초의 시험은 첫째 시험이며, 그 뒤에는 머릿돌이 놓일 때의 성전 시험이 뒤따른다. 그 후 셋째 시험, 곧 리트머스 시험이 도래한다.

금송아지에서, 벳엘과 단에 있는 여로보암의 제단을 거쳐, 요시야 왕에게로, 또 조사리아 리치에게로 이어지는 흐름은 9/11의 기초적 시험으로 인도하는 일련의 예언적 발자취를 나타낸다. 9/11에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세 번째 화의 예언이 옛 토대의 길들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내거는 그 시험을 지목하였으니, 이는 1840년 8월 11일과 9/11 사이의 상응이 보기를 선택한 어떤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에게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체로 사실인 음모론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9/11에서의 알카에다의 개입이 흔히 의문시되지만, 알카에다라는 명칭은 '기초'를 뜻하며, 그들은 1989년의 '끝의 때'에 앞선 한 해 전, 곧 1988년 8월 11일에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만일 기초들의 예언적 상징성에 관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주목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이 상실된다. 9/11에 첫 단계로 기초가 놓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머릿돌이 놓임으로써 성전이 완성된다. 셋째 단계는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이다.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그 기별은 주로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향한다. 이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은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 그곳에서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지나쳐 버림을 받는다. 이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개신교가 그러하였고,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으며, 모세 시대에 사십 년 동안 죽어간 자들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다.

9/11의 셋째 화는 1840년 8월 11일의 둘째 화로 예표되었고, 그 차원에서 두 이정표는 모두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의 최초의 상징인 나귀로 표상된다. 일요일 법령은 짐승의 표이며, 그 짐승은 종종 사자로 표상되어, 그리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를 모조한다. 일요일 법령은 사자로 표상되고, 유다에서 온 불순종한 선지자는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었으며, 베델의 거짓 선지자와 한 무덤에 묻혔다. 그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예언적 기간, 곧 나귀에서 사자에 이르는 예언적 기간에 죽었다. 그 시험의 기간은 베델의 거짓 선지자의 무덤으로서, 그가 유다에서 온 불순종한 선지자를 자기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게 하였던 바로 그 무덤이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유다 왕국의 모조물로 표상되는 여로보암의 왕국은, 밀러주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개신교도들을 표상하였다. 그들은 1840년 8월 11일과 1844년 10월 22일의 닫힌 문 사이에 그 언약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역사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상응하며, 그러므로 유다의 불순종한 선지자는 베델의 거짓 선지자로 표상된 배도한 개신교도들과 같은 무덤에 매장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으나, 그는 므깃도에서 죽었는데, 이는 아마겟돈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적용이다. 그는 느고의 경고 메시지를 거절함으로써 길을 벗어났다. 애굽의 왕, 곧 남방 왕인 느고는 북방 왕인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에 있었다. 요시야는 다니엘 11장 40-45절에 있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죽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 그 메시지는 9/11 때 기초가 되었다.

첫째 시험은 기초로 돌아가라는 첫째 천사의 부름이다.

둘째 시험은 분리하고 성전을 완성하라는 둘째 천사의 부르심이다.

셋째 시험은 인 또는 표에 대한 셋째 천사의 시금석이다.

첫 번째 시험은 기초에 대한 시험이며, 2024년에 안식일 줌 모임에 참여하던 사람들의 대략 절반이 1843년 도표에 제시되어 있는 유일한 교리적 쟁점을 두고 이탈하였다. 그 쟁점은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을 확립하는 상징을 둘러싼 것이었다. 밀러주의 운동 당시의 논쟁에서 개신교도들은 다니엘 11장 14절에서 이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아지나 넘어지는 권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는 이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남방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이 스스로 높여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네 백성의 약탈자들'은 이슬람이었는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는가, 아니면 밀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였는가? 밀러는 이교와 교황주의의 황폐케 하는 권세가 모두 스스로를 높였고, 넘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한 그 권세라고 이해하였다. 그 논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도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예언의 말씀에 직접적 언급이 없는 사건을 지목하는 것으로는 하박국의 두 판을 통틀어 유일한 표상이다. 도표에 있는 그 표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닌 분리의 권능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그 기초적 논증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4년에, 이상을 세우는 주체가 로마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릇된 이해로 인해 좀 그룹의 대략 절반이 이탈하였는데, 그 역할이 로마에 속한다는 점을 밀러주의자들이 매우 적절하게 변증한 바 있다.

2023년에 시작된 정결케 하심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키를 가지고 방에 들어오셨을 때 시작되었으니, 그 키는 그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가 그의 방에 들어오셨을 때,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한 음성을 일으키셨다. 그 음성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르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성전은 곧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다.

이어 2024년에 첫 번째 시험, 곧 기초에 대한 시험, 누가 그 이상을 세우는가에 대한 시험—즉 남은 자를 인치는 그 이상—이 있게 된다. 남은 자를 인치는 내부적 이상은 제10장의 그리스도의 이상이며, 외부적 이상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이상이고, 그 적그리스도는 로마이다. 곧 그리스도의 내부적 이상과 적그리스도의 외부적 이상이다. 인침이란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진리 안에 굳게 정착하는 것이며, 제10장의 내부적 이상은 영적인 것이고, 제11장의 외부적 이상은 지적인 것이다. 이 두 이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상응하는 경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다니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인침을 받을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기준이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더라. 다니엘이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더라. 다니엘 10:1.

기초의 알파 시험은 다니엘 11장 14절을 두고 치러졌고, 그것은 밀러주의자들의 동일한 기초 시험과 병행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박국의 파수꾼이 쓰고 분명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판에 제시된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유일한 논쟁이었다. 2024년의 기초 시험은 첫째 천사의 강림이었으며, 그것은 1840년 8월 11일, 1888년, 그리고 9/11로 표상되었다.

그 천사는 미가엘로서 또한 강림하였으니, 미가엘은 모세를 부활시키신 분이요, 그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2023년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였다. 그 부활을 에스겔은 네 바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으로 표상하며, 화이트 자매는 그 네 바람의 예언을 분노하되 억제된 말이라고 부르며, 이는 1840년 8월 11일과 9/11의 이슬람을 가리킨다. 알파 시험은 기초를 시험하는 외부적 비전이었고, 오메가 시험은 내부적 머릿돌 비전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그 뒤에 세 번째 시험이 뒤따르겠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24년 알파 외적 시험에 관한 비전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째이다. 그 토대적 시험을 통과해야 완결적 격인 오메가 시험에 관여할 수 있다. 그 두 시험은 세 번째 시험과는 다른 예언적 성격을 지닌다. 세 번째 시험은 후보자가 앞선 두 단계를 참으로 통과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시금석이다.

첫째 시험은 기초이며, 둘째 시험은 성전의 완성이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첫째 칙령의 역사 속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 둘째 칙령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완공되었다. 셋째 칙령은 달랐다. 그 칙령에서 유다의 국가 주권이 회복되어, 세속적 및 종교적 범죄를 기소할 권한이 그들에게 부여되었다. 셋째 칙령에서 재판권이 회복된다. 2024년에 기초적 알파 시험이 먼저 빛자루를 든 사람의 사실상 텅 빈 방 안에 있는 자들을 분리하였다.

오메가 시험은 성전이 완성되는 지점으로, 머릿돌이 놓이는 것으로 상징된다. 성전의 완성은 가라지가 제거될 때 수립되는 승리한 교회이다. 밀러의 꿈에서 성전의 완성은 보석들이 "그것들을 던져 넣은 사람에게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수고도 없이" 더 큰 상자 속으로 다시 던져 넣어졌을 때였다. 보석들을 더 큰 상자에 던져 넣는 먼지떨이를 든 사람을 밀러가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의 증언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나는 지극한 기쁨으로 소리쳐 외쳤고, 그 외침이 나를 깨웠다."

깨우는 밀러의 큰 외침이 '기쁨'으로 권능을 입었음을 유의하라. '기쁨'은 요엘서에서 '새 포도주'를 가진 자들의 상징이며, '수치'는 새 포도주에서 끊어져 버린 다른 포도주 마시는 자들 위에 있다. 밀러를 깨우는 한밤중 외침은, 먼지 털개를 든 사람이 보석들을 더 큰 상자에 던져 넣은 후에 뒤따른다. 그 더 큰 상자는, 잡스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상자 안에 던져 놓여진 보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자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다. 성전은 둘째 칙령, 혹은 둘째 천사, 혹은 둘째와 오메가 시험에서 완성된다. 밀러의 꿈에서, 오메가 시험은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로 표상된다.

또 내가 들으니, 마치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 때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또 그에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6-9.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의 네 가지 오심'이 성취되었고, 그 네 가지 오심 각각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때에 더욱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는 말라기 3장에서 레위인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시는 일의 성취로서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 그는 다니엘 7장 13절의 성취로서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는 다니엘 8장 14절의 성취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혼인에 임하셨다. 혼인은 신부가 스스로 예비하였을 때 거행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현현을 간절한 갈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안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주장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Christ's Object Lessons, 69.

영감에 따르면, 일요일법 위기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녀를 "보는 것"을 통해서만 "세상은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 아래 짓밟는 자들 사이의 구별선을  
고상하고 고결한 의미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낸다. 시험의 때가 오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생각했던 그 불법의 사람의 표지를  
지니는 것이다.” Bible Training School, 1903년 12월 1일.

신부가 스스로 준비를 마칠 때 수확이 도래한다. 그 수확은 요제로 높이 들어 올리는  
기치가 되는 첫 열매의 밀 제물을 함께 모으는 것으로 시작된다. 먼저 계시록의 십사만  
사천으로 지칭되는 첫 열매들이 모이지고, 그다음에 큰 무리인 다른 양 떼가 모아진다. 그  
기치는 그의 강대한 군대이며, 그의 강대한 군대는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있다. 혼인  
때에, 주일법의 심판에 앞서,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 미리 완성되며, 그 성전은 밀려의 더  
큰 보석함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영을 포함한 모든 은사를 소유한 승리하는 교회이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되,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10.

십사만 사천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성경과 예언의 영  
모두에서 '줄 위에 줄'로 제시되어 있다.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변모할 때,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줄 위에  
줄'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그 증거는 신적 피와 인간의 증언이 결합된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2:11.

신성의 피와 결합된 인성의 증언은 곧 모세와 어린 양의 증언이다. 모세는 인성이었으며,  
오메가이신 어린 양의 신성의 피에 상응하는 알파였다. 신부가 자신을 예비하는 즉시  
모든 은사가 회복되며, 흰 세마포로 입은 강대한 군대로서 그녀는 주의 전진하는 군대의  
기치로서의 자리를 취한다. 그 전투 행군은 신부가 예비되어 흰 옷을 입을 때 시작되며,  
그때는 밀려의 꿈에서 그러했듯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때이다.

내가 또 보니 하늘이 열려 있었고, 보라, 흰 말이 있더라. 그 위에 탄 이는 신실하고  
참되신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그는 의로써 심판하시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으며, 자기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에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는 피에 적신 겹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심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더라. 그의 겹옷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9:11-16.

먼지술을 든 자가 빈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면, 그는 보석들을 거두어 더 큰 오메가  
보석함에 던져 넣는다. 제임스 화이트는 그 보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겠지만,  
윌리엄 밀러는 상징에는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것이며, 그 보석들은 흠어진

기초적 진리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도록 들어 올려진 면류관 위에 있는 흩어진 보석들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 위에 기치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기 때문이라. 스가랴 9:16.

이상을 확립하는 로마의 기초적 알파 시험 이후에 오는 오메가이자 두 번째 시험은 완결을 이루는 오메가 시험이다. 그것은 심판의 세 번째 시금석에 앞서는 성전 시험의 마무리이다. 그 시험은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서로로부터 정결케 하여 분리하고, 기름, 곧 그 기별을 근거로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분별하는데, 그 기름은 가버나움 회당에 대한 그녀의 주석에서 화이트 자매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가버나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단번에 가장 많은 수의 제자들을 잃으신 장소이며, 그 제자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스도 시대 제자도의 가장 큰 시험으로서, 가버나움은 그리스도 시대 제자도의 오메가 시험의 상징이며, 나아가 그것은 2023년에 시작된 세 단계 시험 과정에서의 제자도의 오메가 시험을 예표한다. 가버나움에서 그 시험은 하늘의 떡으로 표상되었고, 예수께서 자연적인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영적 적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이라는 맥락에서 유대인들의 실패를 드러냈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회당에서의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요한복음 6장 53절)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 이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제시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선견지명이 있는 자로 여겼고, 예수께서는 영예를 얻지 못하실 것이며, 그분이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베푸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필요하면 이탈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자신을 지나치게 밀접히 연합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제자들을 혼란케 하는 의심을 표명하였다. ... The Desire of Ages, 719.

## 첫 번째 시험

예수께서 이기심에 사로잡힌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주께서 그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그의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품성을 읽어내셨음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이는 유다가 이전에 받아 본 것보다 더 직접적인 책망이었다. 그는 그로 인해 격분하였고, 이로써 사탄이 들어와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문이 열렸다. 회개하기는커녕 그는 복수를 도모하였다. 자기 죄의 자각으로 인해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책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광분하여, 그는 상에서 일어나 대제사장의 관저로 가서 거기에서 공회가 모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자처럼 행하였다. 그가 주를 배반한 대가로 약속된 것은 은 삼십이었고, 그는 그 향유 한 상자의 값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구주를 팔았다.

심령과 행실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유다를 닮았다. 그들의 품성 속에 있는 병독의 반점에 관하여 침묵이 유지되는 한, 공공연한 적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쓰라림으로 가득 찬다.

## 둘째 시험

“유월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두 번째로 만나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제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를 불쾌히 여겼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렇게까지 낮추실 수 있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지상 왕국에서 세속적 영예를 얻으려던 모든 희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였다. 그가 보기에 그분께서 자신을 비하하시는 것을 본 후, 그는 그분을 부인하고 자신이 속았다고 고백하려는 뜻을 굳게 하였다.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주님을 배반하기로 합의했던 일을 완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시대의 소망, 645.

## 최종 결정

그의 의도가 드러나자 놀람과 혼란에 사로잡힌 유다는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나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 “그가 그 딱 조각을 받은 후 곧 나갔으니, 때는 밤이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 바깥 어둠 속으로 들어간 그 배반자에게는 밤이었다.

이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유다는 회개의 가능성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그의 주님과 그의 동료 제자들의 곁을 떠났을 때, 최종적 결단이 내려졌다. 그는 경계선을 넘어섰다.

이 유혹받는 영혼을 대하심에 있어 예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다. 그가 주를 배반하기로 두 차례나 약조한 뒤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 배반자의 마음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는 최후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는 그 거짓 제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호소였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호소를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다. 완고한 교만에 밀려났던 자비의 물결은, 굴복케 하는 사랑의 더욱 강한 흐름이 되어 되돌아왔다. 그러나 자기 죄가 드러난 사실에 놀라고 두려워했음에도, 유다는 도리어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는 성만찬 자리에서 떠나 배반의 일을 끝마치기 위해 나갔다.

유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위한 자비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만일 예수께서 자신에게 딱칠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 침묵하셨더라면,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신적 예지를 가지지 못하셨고, 살기를 띤 폭도들의 손에 기습을 당하여 배반되어 넘겨지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보다 일 년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열둘을 택하였고 그중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유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의 배반이 주께 완전히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비하의 때에 그분의 참된 추종자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참혹한 종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그 배반자에게 선포하신 화를 기억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53-655.